

## 주의력 부족 과행동증후군

우리나라처럼 자식사랑이 모든 것 중에서 으뜸으로 취급되는 나라가 세상에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 모든 것 중에서 —등을 차지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예를 들어 우리가 스트레스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으로 취급하는 것이 결혼이다. 다시 말해 결혼을 스트레스의 輕重을 측정하는 표준으로 사용하여 보통 50점으로 한다. 그리고 이외의 생활사건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사건인 경우에 점수화를 하는데, 서양에서는 일등이 부부사별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자식의 죽음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자식이 곧 자신의 생명이라고 해도 조금도 과장된 표현이 아닌것 같다.

따라서 자식과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 예를 들면 과의문제도 쉽게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식이 내 생명인데 자식이 잘되는 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자식이 공부 잘해서 입신출세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야 보는 측면에 따라서는 당연하고 귀하다고도 할 수 있다. 최근 과외공부에 대해 행정당국, 사회일각에서는 마치 망국병이 되는 것처럼 치부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다사회적인 것으로 몰아치는 감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자식이 내 생명이라는 등식의 원리에서는 과외공부를 시키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가 되기도 한다.

여기서 필자는 과외공부, 자식사랑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소위 말해서 Attention Deficit Disorder, Hyperactivity Syndrome(주의력 부족 과행동 증후군)을 설명하려는 것이다. 몇년 전 위의 질병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다. 그 후 많은 전화 문의를 받고 또 실제로 위의 질병이 있다고 진찰 받으러 온 학생들도 상당수 있었다. 그중 기억나는 환자와 얘기를 적어보자.

국민학교 4학년의 남학생을 어머니가 진찰실로 데리고 왔다. 진찰실에 온 그 어린 학생의 용모나 태도가 전혀 무슨 병이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의아하게 생각되었다. 똑똑하게, 정말 잘생긴 얼굴, 옷차림,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왜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느냐고 물었더니 그 대답이 이 아이가 박사님이 말씀한 주의력 집중 부족증에 걸려서 데려 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가 어떻게 주의력 부족인지를 아느냐고 되물었더니 대답인즉 최근에 그 아이의 학교성적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늘 1~2등을 다투어 왔는데



## 윤 방 부

연세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것은 병도 아니고 또 성적이 떨어질 수도 오를 수도 있는데 무얼 그러느냐고 했더니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꼭 성적을 다시 올려야겠으니 잘 진찰하시어 고쳐달라는 것이다. 아무리 말려도 막무가내로 입원하기를 위해서 입원을 시키기로 하였다.

우선 Attention Deficit Disorder나 Hyperactivity syndrome을 진단하기 위해서 특별히 고안된 질문서가 있어서 어머니한테 적도록 해서 점수를 매겨 보았다. 별로 문제가 안되었다. 또한 입원하여 프로토콜(protocol) 검사를 하였으나 전혀 위의 병을 갖고 있지 않아서 퇴원시킨 적이 있다. 어머니에게 이 아이는 극히 정상이라고 설명하고 소위 인간교육, 인생교육 등에 관해서 서로 얘기할 기회를 가졌다. 대학을 나온 열성적인 어머니는 충분한 지식과 수용태도도 갖고 있었다. 그래도 자식의 성적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분해 하고, 무슨 방법이든지 있으면 강구해야겠다는 생각은 거의 바꾸기가 불가능 하였다.

이와는 다른 예로 실제로 주의력 집중 부족 과행동증후군이 있는데도 질병으로 취급하지 않고 무조건 자식을 들볶고 때로는 폭력을 휘두르는 주위 사람을 가끔 볼 때가 있다. 이런 부모들은 이러한 주의력 집중부족 과행동 증후군을 설명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 이 병이 있는 아이는 아무리 벌을 주고 해도 결코 그 증세가 좋아질 수가 없고 오히려 심화된다 하겠다.

글의 서두에서 소위 이 질환을 설명하지 않은 것 같다. 간단히 설명하면 유치원, 국민학교 학생시절, 수업시간 등에 잠시도 집중하지 못하고 몸을 비비 꼬고, 옆 또는 앞의 친구를 때리고 머리를 잡아당기고, 괜히 소리를 펍펍지르고 하는 등의 증상을 보인다. 따라서 학습능력은 물론 성적도 떨어지고 또 동료들도 그를 멀리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위의 두 예에서 보듯이 인간의 발달, 학습능력, 생활습관, 학교 또는 단체생활에서 무언가 이상이 있을 때 무조건 야단이나 치지 말고 정확한 진찰을 받을 것이고 또 성적이 떨어진다고 해서 무슨 병에 걸리지 않았나 하는 과보호적 행동도 배제해야 된다는 것이다. ㉞